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농마국수와 밀면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1950년 흥남 철수 때 미군 상륙함(LST)을 타고 부산으로 피란 온 할머니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고모가 평안도 관촌에서 냉면집을 하셨어. 음식 솜씨가 참 좋았지. 가마솥에 국수 삶는 물을 하루 종일 끓이다 보니 방이 쩔쩔 끓었어. 겨울이면 독립운동 하시던 양반들이 많이 찾았다 그래. 냉면 먹으러 와서 며칠씩 쉬다 가고 그랬어. 단골 중에는 김일성도 있었어."

할머니가 말한 관촌(官村)이 평안북도 운전군 덕원리에 있는 마을이며 가까운 곳에 경의선 역이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다. 하지만 더 이상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가끔은 타임머신 같은 게 있어 당시 관촌에 있었다는 냉면집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엄동설한에도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하시던 양반들이 냉면 한 그릇에 위로받고, 아랫목에 누워 모처럼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궁금했다. 그때를 재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현장만큼은 직접 가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의 이런 바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쩌면…'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지난 4월 2일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원으로 참가한 걸그룹 레드벨벳이 평양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는 장면이 공개됐다. 내게는 예술단의 공연 그 자체보다 이 장면이 훨씬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은 남한 측 인사는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혹은 젊은 세대로부터 높은 인기를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의 사진을 보니 사뭇 느낌이 달랐다. 이전까지의 옥류관 냉면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었다면 레드벨벳이 먹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상징처럼 보였다.

"만약 나에게 북한 음식 취재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정을 잡을까?"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만 혼자서 이런 상상을 해봤다. 옥류관 냉면이 궁금하긴 했지만 나는 가장 먼저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신흥관'부터 가고 싶었다. 북한 사람들은 흔히 "평양에 옥류관이 있다면 함흥에는 신흥관이 있다"고 말한다. 옥류관이 평양식 국수를 대표하는 곳이라면 신흥관은 함흥식 국수를 대표하는 곳이라는 의미다.

육수에 말아 먹는 건 평양냉면, 양념에 비벼 먹는 건 함흥냉면이라는 식의 구분은 분단 이후 남한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과거에도 지금도 북한에서 평양식과 함흥식은 차가운 육수에 면을 말아 먹는 같은 방식을 취한다.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면을 만드는 재료에 있다. 평양식은 메밀가루로 면을 만들고 함흥식은 감자 전분으로 면을 만든다. 감자 전분인 녹말을 북한에서는 '농마'라고하기 때문에 함경도 지방에서는 함흥식 국수를 '농마국수'라고 한다. 이 농마국수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매우 극적인 변화를 겪는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국군과 연합군은 전세를 뒤집으며 압록강 유역까지 북진한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다시 역전된다. 육로로 후퇴하던 국군과 연합군은 1950년 12월 19일 흥남부두를 통한 해상 철수 작전을 결정한다. 애초 10만 명의 병력과 물자를 실어 나르려던 철수 작전은 소식을 듣고 몰려온 피란민으로 인해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났다. 결국 흥남 철수작전은 닷새 동안 20만 명에 가까운 군인과 민간인을 탈출시킨다. 이때 남쪽으로 피란 온 함경도 주민의 대부분은 부산에 정착했고 일부는 거제도에 정착했다.

부산에 도착한 함경도 주민들은 부산시 남구 우암동에 임시로 마련된 피란민 수용소에 우선 거처를 마련했다. 사정이 나은 이들은 판자촌에, 그마저도 형편이 안 되는 이들은 땅을 파고 거적을 덮어 생활했다. 어떻게든 거처를 마련하고 나니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다. 우암동 수용소와 가까운 곳에는 부두가 있었다. 이 부두에는 미군의 보급 물자 하치장과 창고가 있었다. 피란민 중 일부는 이곳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미군의 보급 물자 중에는 미국에서 구호 물자로 보낸 밀가루도 있었다. 피란민들에게 밀가루는 요긴한 식량이었다. 함흥 출신 피란민은 감자 전분 대신 밀가루로 농마국수를 만들었다. 농마 대신 밀가루를 썼으니 농마국수라 부를 수는 없었고 '밀국수'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이 밀국수가 나중에 밀면이 된다.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 가운데 하나인 밀면은 이렇게 기구한 운명 속에서 만들어졌다. 부산에서 자라며 밀면을 일상의 음식으로 먹어 온 내가 밝혀 낸 밀면의 스토리는 여기까지다.

세상의 모든 음식은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진다. 음식의 스토리는 원형과 전통 그리고 보편성과 지역성으로 구성된다. 원형과 보편성은 마치 신화와 종교처럼 변하지 않는 가치인 반면, 전통과 지역성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지난 65년 동안 남과 북은 철저히 단절된 상태로 살아왔다. 삶이 분단되었듯 음식 역시 분단된 채로 남과 북의 환경 속에서 다르게 변해 왔다. 함흥식 농마국수와 부산의 밀면은 어쩌면 전혀 다른 음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원형과 보편성 같은 공통점이 반드시 있다고 믿는다.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다. 이 봄바람을 타고 나는 함흥시에 있는 신흥관을 가보고 싶다. 늘 '애비 없는 자식' 같아 보였던 밀면의 원형을 꼭 한번 먹고 싶다. 그리고 이 지면을 통해 신흥관 농마국수의 맛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다. 〈맛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치과 진료의 디지털화 어디까지 갈까

박 찬
전남대 치과병원 치과보철과 교수

필자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치의학 영역에서 요즘 최대의 관심과 화두는 'Digital Dentistry', 즉 지금까지 수작업으로만 진행됐던 치과 진료를 진단에서 치료 완성까지 전부 기계의 자동화 과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실제로 치과영역에서 디지털화의 진행 과정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으며, 세계적 수준의 치의학 의료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에서는 더더욱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가 전공의 시절 학회에서나 한두 케이스 발표했던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보철물 제작은 이젠 필수 장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컴퓨터상에서 진단 계획된 임플란트의 즉시 식립은 3~6개월의 기다림 없이 수술 당일 즉시 보철물의 구강 내 장착이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장비나 기술 개발에 앞장서는 회사들이 현재 치과 산업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치과 진료에서의 디지털화는 현재 치과 진료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각 환자의 모든 치아 및 치주의 정보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가능해 빅데이터의 분석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환자의 구강내 상태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며, 추후 치아의 상실 등의 변동사항이 생기더라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화된 치과 진료는 시간과 비용의 단축 역시 가져올 수 있다.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임플란트의 즉시 식립 후 즉시 보철 수복'이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치과 보철물 수복을 위해 의사의 치료 후 본을 뜨는 인상 채득 과정, 보철물 작업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동안 유지하기 위한 임시 보철물 제작 과정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환자는 의사의 치료 후 당일 보철물 제작까지 완료돼 편안한 저작이 가능한 시대가 현재도 일부 진행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이러한 치료 프로토콜은 보편적으로 진행되리라 본다.

치의학 교육에서도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했던 비교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어떤 환자에게서 부분 틀니를 A라는 디자인, B라는 디자인, C라는 디자인으로 각각 제작해 환자에게 착용시키고 서로 장단점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고자할 때,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러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기가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컴퓨터상에서는 같은 모델 파일에서 다양하게 디자인을 그려 CAM 작업 혹은 3D 프린팅으로 출력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 정확한 디자인별로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임상 연구는 특히나 윤리적 문제 등의 제약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따라서 일부 치료 방법은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이 치의학에 접목되면 이러한 점도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본다. 치의학 교육을 담당하는 필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떤 이들은 이제 모든 치의학 영역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치의학 영역만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특히 의료 영역은 인체를 다루는 부분이라 민감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치과 영역에서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공개하는 것이 과연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혹은 앞으로 그 데이터에 의존해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디지털 치의학은 기존의 수작업으로 진행됐던 방법의 교체일 뿐, 의료적인 판단 및 계획 수립은 엄격한 의료 지식과 윤리에 기반을 둔 사람의 판단으로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그러한 기조 속에 발전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 진료의 디지털화는 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치료 방법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치료 방법을 좀더 편안하고 정확하고 빠른 치료를 위해 기계나 컴퓨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치과용 CAD 소프트웨어나 보철물 제작을 위한 3D 프린터 등의 장비는 단순히 공학적인 기기 개발이 아닌 치의학 학문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치과진료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오래 전부터 내려온 치의학 영역의 지식과 기술의 정확한 이해와 습득이 중요할 것이다.

기 고

함께 성장하는 '우분트 공동체 교육'

윤 송 자
광주풍향초등학교 교장

3월의 초등학교는 새 학년 특히 1학년의 경우 처음으로 학교라는 기관에 발을 딛는 의미 있는 시작을 하게 된다. 귀하디 귀한 내 자녀와 한 달 정도 지내는 방학이 힘들다는 학부모들이 신학기가 돼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 학교는 새로운 교실에서 얼굴도, 이름도, 성격도, 능력도 다른 몇십 명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하루 생활해야 한다.

학생들은 배 아프다며 유난히 보건실을 드나들고, 여선생님들은 생리 주기가 달라질 만큼 한 달 동안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서로에게 적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픈 3월이 갔다. 매화, 개나리 벚꽃이 앞 다투어 꽃을 피웠다. 이 식물들은 혹독한 지난 겨울 동안 봄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든 겨울을 잘 이겨낸 식물들, 3월을 잘 이겨낸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4월에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얼굴에도 이 봄꽃처럼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독립운동을 하다 죽음을 앞둔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떠오른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후략) " 이런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기에 안중근 의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독립운동을 한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수의를 짓는 어머니의 마음을 감히 측량할 수 없지만 맹목적인 애정을 쏟는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 생각되어 몇 가지 부탁드리려고 한다.

첫째, 부모는 자녀가 자생 면역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부모들의 감정이 격해져서 아이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개 숙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

'헬리콥터 맘'이란 자녀의 주위를 헬리콥터처럼 빙빙 돌면서 과잉 보호하는 엄마이며, '인공위성 맘'이란 자녀의 성장과 변화에 관심을 갖고 소통하면서 자녀의 행동을 멀리서 지켜보며 기다리는 엄마란다. 부모의 보호 본능을 줄이는 만큼 자녀들의 자생력은 길러진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자녀가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미래의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다.

둘째, 공감 지수를 높이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다. 나무 끝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놓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다 먹어도 좋다고 말한 뒤 시작을 알렸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도착해 행복하게 나누어 먹더란다. 한 명이 먼저 가서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째서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우분트는 반투족의 말로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I am because you are)"라는 뜻이다.

셋째, 바른 인성 교육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은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이며 교육의 목적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기 위함이라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철저하게 지도가 이뤄져야겠다. 운전하다가 창밖으로 담배 꽁초를 내던지는 아빠에게서 자녀는 무엇을 배우겠는가. 산 속에 심신이 지친 분들이 쉴 수 있는 요양원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전자파를 없애기 위해 방에 콘센트가 보이지 않았다. 밀폐된 전철이나 버스에서 큰 소리로 그것도 급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장시간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의 없음은 물론이고 그 전자파가 밀폐된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안타깝다.

매년 입학생이 줄어서 인구 절벽을 실감한다.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마음속 상처를 안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행복한 가정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가정의 순기능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사람의 품성은 그 사람이 가지는 태도, 행동 특성이기에 학교에 오기 전에 이미 형성되므로 가정을 최초의 학교라고 한다. 부모와 선생님과 주변 어른들이 먼저 모범이 되며, 이를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꿈 너머 꿈을 꾸며 밝고 바르게 자라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정 교육, 학교 교육, 사회 교육이 함께 아우러져 네 딸 내 아들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들딸이 되어 우분트 정신으로 함께 살아가는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고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으랴!

社 說

윤 시장 불출마·단일화 요동치는 광주 경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구도가 윤장현 시장의 불출마 선언과 예비후보 3명의 단일화로 급변하고 있다. 이로써 7명에 달했던 경선 후보는 강기정·양향자·이병훈·이용섭 등 4명으로 압축되면서 컷오프 결과가 주목된다.

윤장현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정신의 계승과 올바른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시민시장으로서 부여받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와 친환경 자동차, 에너신산업 등 그동안 추진한 민선 6기의 주요 정책이 국가 시책으로 추진되는 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드러냈다. '더불어 사는 광주'를 모토로 장애인과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5·18 진상 규명을 통한 광주 정신의 계승, 금호타이어 등 지역 기업 살리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시민·인권·통일 운동가로 활약하면서 '시민 운동의 대부'로 불린 윤 시장은 안철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된 이후 민주당을 지켜왔다. 윤 시장의 불출마 선언이 '후진들을 위한 아름다운 퇴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 선두권을 달리던 현역 시장이 돌연 포기한 것을 놓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앙당 계파 싸움의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만약 이러한 추측이 사실이라면 시민 주권을 무시한 중앙당의 횡포 아니냐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윤 시장의 불출마 선언이 있었던 이날, 강기정·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는 여론조사와 숙의 배심원제를 통해 단일 후보로 강기정 후보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단일화는 그동안 공동 보조를 맞춰 왔던 윤 시장의 불출마와 맞물리면서 강 후보에 대한 지지도 상승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용섭 후보에 대한 당원명부 유출 수사 결과와 결선투표 여부도 여전히 관건이 될 전망이지만 요즘 들어 광주 시장 경선 구도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여순 사건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일 추념사에서 "더 이상 4·3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 추념일 행사를 지켜보면서 전남 도내에서도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순사건의 경우 제주 4·3을 진압하라는 상부 명령을 거부한 여수 14연대 군인들의 반란 사건으로 간주돼 70년 동안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 정부가 들어서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일부 조사를 하긴 했지만 보수 정권으로 교체되며 중단됐고, 18·19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여순사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8월까지 여수와 순천·구례 등지에서 무고한 많은 주민이 군인과 경찰들의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군경은 주민들을 반란군 동조 세력으로 여겨 제대로 된 조사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일본도로 참수하거나 집단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우기도 했다. 제주 4·3과 마찬가지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학살이었다.

따라서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뒤늦게나마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들의 한을 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수신호

스트라이크! 아웃! 세이프! 심판의 손동작 하나하나에 승패가 결정되고 선수와 더그아웃 그리고 관중까지 웃고 우는 경기가 야구다. 판정을 넘어 야구의 일부가 된 심판의 수신호. 지금은 너무 익숙해 당연해 보이지만 야구 경기에서 수신호가 도입되고 확산되는 데는 윌리엄 호이라는 청각 장애인 선수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

호이는 세 살 때 수막염으로 청각을 잃고 장애인 학교에서 야구를 배웠다. 뛰어난 체력과 실력을 갖췄지만 장애인 선수가 갈 팀은 없었다. 졸업 후 아버지를 따라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고 있을 때 그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그것은 가게 앞으로 굴러온 파울볼.

호이는 저 멀리 공을 찾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 강속구를 뿌렸다. 빠르고 정확한 송구에 깜짝 놀란 이들은 클럽팀 입단 테스트를 권했고 그렇게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호이의 야구는 쉽지 않았다.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 소리를 듣지 못해 타석에서 공 세 개를 흘려보내고 다음 공을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팀 선수와 관중들의 웃음거리가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야구 하는 방법을 찾았다. 먼저 3루 주루코치에게 스트라이크일 때는 오른손을, 볼일 때에는 왼손을 들어 달라 했다. 아웃·세이프 판정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의 수신호를 활용한 동작을 노트에 그려 주며 부탁했다.

코치의 수신호는 심판에까지 이어졌다. 당시에는 경기장 아나운서나 대형 전광판이 없었기 때문에 관중석 특히 외야석에서는 심판의 판정 소리를 듣기 힘들었다. 심판들은 목소리와 함께 손짓으로 판정을 보여 줌으로써 선수도 관중도 판정을 쉽게 알아보게 한 것이다.

호이는 1988년 워싱턴 세네터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첫해 82개의 도루로 내셔널리그 도루왕에 올랐고 이후 신시내티 레즈, 시카고 화이트삭스 등에서 활약하며 통산 타율 0.287, 도루 594개를 기록해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4월은 장애인의 달이다. 야구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된 것은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한 청각 장애 청년의 열정과 그를 도우려는 코치·심판들의 배려가 있어 가능했다는 사실이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유제관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